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9월 1일 (제705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명마와 명견

잘 짓는다고 명견(名犬)이 아니다. 도둑을 잘 잡아야 명견이고, 짓을 때 짓고 짓지 말아야 할 때 짓지 않아야 명견이다. 아무 때나 짓어대면 시끄럽기만 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체하고, 좋은 꿈도 많이 먹으면 해로운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잘 말한다고 명마(名馬)가 아니다. 주인이 서라고 할 때 설 줄 아는 말이 진정한 명마다. 명 설교자는 설교만 잘하는 자가 아니다. 설교한 것을 실천하는 목사라야 하고, 최고의 성도 역시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성도라야 한다.

어느 교회에 목사가님이 새로 부임하여 '운유한 자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정직하고 진실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설교를 하였고, 모두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이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로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목사님을 찾아가 조용히 나가줄 것을 종용했다. 목사님은 그러겠노라 하고는 주일 고별설교를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계속 같은 설교를 한 것은 여러분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는 목사님의 일언(一言)에 장로와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렇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다(야2). 나도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옛 성현들도 배움은 '알과 행함을 합친 이름'이라고 했다. 신앙체현은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가? 운유한 자가 땅을 기어오르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라. 열매 없는 나무가 무명하듯,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알자.

내비(Navi)를 찍었으면 움직여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흐르는 시간과 함께 그 기세가 꺾이고 있다. 먼저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계산상집회까지 총 4주간의 기도원 집회에 성령으로 역사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또한 이번 집회에 물심양면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반드시 그 날 그 시에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집회 후 거의 매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찍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비에 입력을 해놓고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내비도 아무 정보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내비에 입력을 하고 차를 운전해서 움직일 때, 내비의 정보를 들으며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실천해가는 우리의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비에 찍었으면

마찬가지이다. 목적지만 바로 입력해놓으면 가는 중에 우리가 간혹 내비의 안내를 잘못 파악하거나 한눈을 팔다가 길을 이탈하더라도 어김없이 정보수정을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인생길에서 잠시 한눈을 팔거나 엉뚱한 곳으로 발을 잘못 들여놓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영·혼·육을 총만케 채워준 하계산상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 주일마다 영상을 통해 집회실황을 보여주었다. 종교동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하계산상집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또 보았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실천이다. 가장 평범한 진리, 곧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결심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실천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6월의 멕시코(Mexico) 집회 중,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에서 만난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다. 아주 편리한 기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아무리 내비가 좋아도 우리가 그 내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비에 목적지를

움직여라!" 곧,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다. 매주 금요일집회, 주일예배, 그리고 여러 집회 등을 통해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다. 아주 각인될 만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닌가.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내비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내비가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해준다는 것을 안다. 간혹 내비가 엉뚱한 장소로 안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정상적인 내비라면 입력한대로 안내한다. 길치인 사람들에게도 내비는 그래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삼아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는 일도 이와

바로 그렇기에 우리의 실수나 과오는 결코 실패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수도, 실패도 없겠지만, 그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시도 없이는 경험도, 달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또한 영상예배를 통해 반복하며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박힌 말씀이 있을 것이다. "5리 가자면 10리 가는 마음을 가져라!", "너 내면의 내시경을 밝혀라!",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상상을 가져라!" 등 많은 주옥같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이제 그 말씀에 입각하여 목표를 세웠다면, 움직여라. 운전대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지 않은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3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강사: 이초석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때문에’ 신앙과 ‘덕분에’ 신앙의 차이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2:1~10)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능력은 곧 바로의 강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10:1~2). 그 능력을 힘입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덕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옥에 들어간 덕분에 술관장과 떡관장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모세나 요셉 둘 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상황을 ‘덕분에’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나 원치 않는 상황과 만나면 대부분이 ‘~때문에’라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상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는 원망하는 것이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말합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같은 지령을 받은

답임선생님은 학생의 부모에게 밀린 등록금을 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 보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는 부모님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아이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탔더라면 부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자식 등록금도 못 주는 게 부모냐? 등록금도 못 내는데 학교는 무슨’ 하고는 공부를 때려치우고 결국 세상으로 떠돌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담당 검사가 그의 물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친구, 사석에서 대화하니



다. “나는 등록금 사건 덕분에 공부에 몰두해서 오늘에 이르렀지.”, “나는 그 사건 때문에 공부를 그만 두고 문제가 되었어.”

한 사람은 ‘때문에’ 삼았고, 한 사람은 ‘때문에’ 삼은 결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소크라테스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는데도 소크라테스가 반응이 없자 화가 난 그녀는 밖으로 나가 걸레를 땀 물이 든 물통을 들고 와 소크라테스의 머리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화도 내지 않고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제자들은 위대하신 스승이 왜 저런 악처에게 시달리며 사냐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성질 사나운 말 덕분에 훌륭한 기수가 되는 거라네.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지,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만난 덕분에 철학자가 되었고, 성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덕분에 유능한 해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병든 남편 때문에’, ‘속 썩인 자녀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회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이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도 사회 탓이나 가족 탓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느 제자에게 중고차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차를 두고 그가 불평하는 겁니다. 차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 차 때문에

고생했다는 등... 그런데 똑같이 중고차를 받은 어떤 제자는 ‘이 차 덕분에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가 아니라 생각을 변화시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더욱 주께 매달려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했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그는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감도의 위험과 동족의 살해위험을 견디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명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덕분에 능력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집에 모실 수 있었고(눅19), 한나는 브닌나 덕분에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으며(삼상1),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고(삿11), 롯은 과부가 된 덕

생각이 결과 생각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분에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으며(룻4), 에스더 역시 고아여서 사촌 오라비손에 키워진 덕분에 왕비에 올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에2). 우리나라 역시 위쪽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제명된 덕분에, 그들이 국내 집회를 방해한 덕분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문에’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법사에 감사하라”(살전5:18)입니다. ‘때문에’는 곧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면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할 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로 ‘때문에’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반대로 ‘때문에’ 사상은 마귀가 창조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처음으로 말한 것이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라고 말한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창3:12)?

타닥타닥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라고 해야 옳습니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켜보세요.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는 다 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때려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때문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때문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운명은 그것이 좌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으로 살 것인가 부정으로 살 것인가

가나안 지파대표 12명, 그중 10명은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대장부 아낙자손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민13:32-33).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 덕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민14:9).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을 비롯해 그들에게 동조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지지리도 가난해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둘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두 학생 모두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에 왔습니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금융위기와 해법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축소계획 발표는 신흥국가에 유입되었던 최소 2조 달러 정도를 단기간에 유출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외환 및 자본시장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연일 폭락하고 있는 인도의 루피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 치우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65루피까지 하락하였고, 시장의 유동성 부족은 국제가치까지 추락시키면서 내수금리까지 폭등하고 있어 외환 및 재정위기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중요한 원인들이 다음과 같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첫째, 뿌리 깊은 관료제와 각종 보조금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 완수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인도 내각의 수반인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은 1991년 단호하고 획기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화를 통하여 붕괴직전의 인도경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40조의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에너지 구매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축소와 유류시장의 대외개방은 내부적으로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축소시켜 추가적인 구조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시장에 대한 불신과 유동성 회수로 화답하였습니다.

둘째, 출구전략으로 실행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축소는 달러화의 강세 및 미국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효과로 안정성이 높은 미국과 유럽으로 자본이 이동

하자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심각한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마비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외환사태와 견주어 보았을 때, 공통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기자본이 동시 다발적으로 빠르게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98년 이후에도 2002년 카드사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최근의 유로사태 등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대응능력을 배양하였고, 무엇보다 건실해진 기초경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980조를 돌파하였고 상당 분 이 주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정책으로 금리가 상승될 시 부실화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유럽은 이슬람의 교세와 영향력이 빠르게 넓게 확산되고 있으나 극히 드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도 교세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도 굳건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념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

신뢰가 능력이다

젊은 보석 세공사는 너무도 기뻐다. 마치 심마니가 산삼을 얻은 듯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아 원석을 채취했으니 이것으로 물방울 다이아만 멋들어지게 세공해 내면 엄청난 부와 명성이 바로 내 손안에 있는 것 아닌가?

몇 날 밤을 새워가며 명작을 만들고자 부심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만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그 원석 한 가운데에 흉한 갈자국이 나고 만 것이다. 정말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어쩌랴? 후회해본들 죽은 자식 부랴 부랴 만지기 아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데 그 말이 심상히 들리지 않는다. "지금쯤 초야에 묻혀 계시지만 왕년엔 이 바닥에서 명성이 자자했지. 그 노인네를 한번 찾아가 보던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고 또 물기를 거뜬한 끝에 그 노인이 산다는 깊은 산골 우거에 도착하였다.

밤이 늦은 시간인지라 만나기를 꺼려하는 노인의 박대를 무릅쓰고 조르고 또 졸라 노인 앞에 그 문제의 원석을 내놓았다. 노인은 얇은 미소를 띠며 "젊은이, 욕심이 과했군. 그런데 이걸 나에게 사들인 말걸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 아니, 지금 무언을 마다하겠는가?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다시 그곳을 찾았다. 노인은 "자네는 나를 믿고 다이아 원석을 맡겨 주었네. 그러니 나도 그 믿음에 답할 수밖에." 노인이 펼쳐놓는 종이 위에는 참으로 믿기 힘든 장미꽃이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그 흙집을 이용하여 다이아 원석을 멋진 장미 다이아로 세공해 낸 것이다.

젊은이의 믿음은 노인으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 그래서 신뢰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한다."

예수중심편집실

당신이 우물가의 여인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제 자네 들레나 보게나

들레들레 들러봐도 도울 자 없고
들레들레 찾아봐도 도울 자 없네.
들레들레 들러봐도 도울 자 없다니
아~ 어리석은 나그네여!
이제라도 가마에서 내려 가마꾼 살피게.
심판대 설 날 머잖아...
뜨거운 불길에 음식 맛 낸 냄비는
어찌 집시만 자랑하나 울부짖지 않는가.
귀와 눈을 뜨고 보게나.
여보게
밤짓는 نوم 따로 있고 먹는 نوم 따로 말게.
함께 즐겁이 주님 뜻 아닌가!

자네와 나 석양노을 보이잖나.
때늦은 후회 소용 있으랴.
어서 눈을 뜨고 귀를 열게.
새벽 닭 울지 않나.
언제까지 가마 타려나?
내리게,
어서 내려,
섬김의 도리 주님 뜻이라네.
자네 나 나나 종이 아니던가.

아~
내 인생 어찌 된 걸까.
생각 좀해보자니 시간이 없구나...

들레들레 들러보니
내 인생 허물과 죄악뿐임새.
들레들레 찾아봐도
내 놓 것 없는 내 인생.
들레들레 들러봐도
함께 갈 자 없으니
선행이란 친구 찾아 떠나보게.
복음 들고 뛰어보게 달려보게 남아보게.
시간 잠야보게 멈추지 않겠나.
마지막 무대 박수소리 생각하며 웃어보게.
새 힘 치솟잖나.
주님 음聲 잠했다 칭찬소리 들리잖나.

2013. 4. 10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프랑스의 단편작가 모파상이 쓴 소설「목걸이」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급관리와 결혼하여 늘 볼만 가운데 살아간던, 아리따운 르와젤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늘 불상에 잠긴 채 사치와 쾌락을 동경하며 자신의 미모를 뽐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난 부가 여는 무도회 초청장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걱정거리였습니다. 고민하던 남편은 그동안 저축해온 돈으로 부인에게 한 번 벌 사주었고, 르와젤 부인은 부자 친구를 찾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옵니다. 드디어 무도회 날 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기쁨과 희열에 찬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집에 돌아온 그녀는 빌렸던 목걸이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고, 그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구해서 돌려주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경험한 르와젤 부인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부자 친구를 통해 그 목걸이가 가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동경하는 것이 지나치면 사치와 허영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단장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닌 열치와 정절, 그리고 선한 행실임을 기억하십시오(딤후 2:9-10, 반전 3:3-4).

선재식 전도사

blessedmbc@naver.com

::창춘, 그 아름다운 이름::

비교병(病)

한 사람이 앞사람들 돈을 모아 작은 차를 샀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차를 탈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중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는데, 바로 그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따라 멈춰 섰습니다. 아주 크고 멋진 외제차구요. 그 차를 본 순간, 그는 갑자기 자신의 차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불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땀땀한 차에 탄 자신도 땀땀이 된 기분이었지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를 통해 박탈감을 느끼고,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까지 잘 다니던 학교가 부끄러워지고, 잘 살던 집이 작아 보이고, 잘 만나던 연인이 부족해 보이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면 서부터 아니던가요?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에게 맞춰질 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99개의 행복을 가지고 잘 살다가 100개를 가

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한 개가 없을까?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 때문에 99개를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그 한 개를 얻게 되면 행복하나? 아닐 겁니다. 101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시 비교하고 불행해질 테니까요.

이런 일들은 평소 비밀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부자와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던 슬슬 박탈감이 걸려오지요. 비교병이. 저도 그랬던 적, 있습니다. 누가 명품 백을 들고 있으면 내 가방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누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 있습니다. 비교라는 몹쓸 병은 몸과 마음을 잔뜩 위축하고 움츠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때마다 상기할 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게 되고 나의 삶을 살기 보단 남의 삶을 살게 되지요. 제 삶의 핵심 기준은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있을 때, 남들이 명품 백을 매든, 돈을 사든, 발을 사든 관심이 없어요. 내 재능을 잘 알고 있고 있는지, 친구나 회사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크리스천인지 그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니까요. 그럴수록 더욱 더, 자신의 기준을 마음 판에 록 꽂아둬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아가야 할 곳, 기준이 없는 배는 항해하는 게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니까요. 인생도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의 주연은, 바로 '나'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꼬부랑 할머니 한분이 지팡이를 짚고 보따리를 머리와 등에 이고 지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습니다. 손짓을 하며 차에 타라고 권유를 하였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였습니다. 선교사의 계속되는 권유에 할머니는 고개를 연신 꾸벅거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선교사는 백미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거

운 보따리를 차에 올라탄 후에도 여전히 머리에는 이고 등에는 진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내려놓으시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지만, "차를 얻어 탄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를 내려놓겠소."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 백가지 걱정, 천만장자 천 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처럼 남녘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염려걱정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짐을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해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평생에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은 오로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드십니까? 예수께로 나와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시 68:19).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수험생과 건강

어느덧 수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다. 이마쯤이면 수험생을 못지 않게 부모님들 마음속에도 긴장감이, 혹은 걱정이 가득할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일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 마음을 합하여 건강한 수험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공부가 질리지 않는 게임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다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심적·육체적 부담과 압박에 시달린다. 이러한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과 학습능력을 오르게 하는 건강한 체력이다.

수험생들의 마음이 불안정한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듯하고, 학습의욕이 떨어져 공부하기가 싫고, 잠을 쉽게 못 이루거나 깊게 자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꾀다. 또한 입이 쓰고 허품이 잦으며 심장이 놀란 듯 마구 뛰기도

한다. 온몸이 나른하여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심해지면 체중이 줄어든다. 이러한 경우는 양파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파에는 유화지방 성분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불안 초조가 심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없고 부산해지므로 돼지고기와 견과류 등의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머리가 멍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럽다 하는 수험생들은 유자를 먹으면 좋다.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 이상 들어있으며, 새콤한 구연산이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모세혈관까지 강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셀러리는 진정, 권위작용과 항스트레스 작용이 뛰어나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키며, 체내 독소를 빨리 배출시켜 피로를 회복시킨다.

더운 여름, 수험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가 무겁고 자주 눕고만 싶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진다. 이럴 때 좋은 식품은 까치콩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까치콩은 '소화기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더위를 견디게 하고 독소를 배출시켜주어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고 한다. 까치콩, 인삼, 오미자 4g, 맥문동 8g을 함께 끓여 마시면 더위에 지친 수험생들의 기력을 용솟음치게 만들어 더위를 이기고 체력이 높여주게 된다.

머리를 비워야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적절한 휴식과 산책, 그리고 기도과 말씀은 분주하고 불안한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되어 더 큰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5).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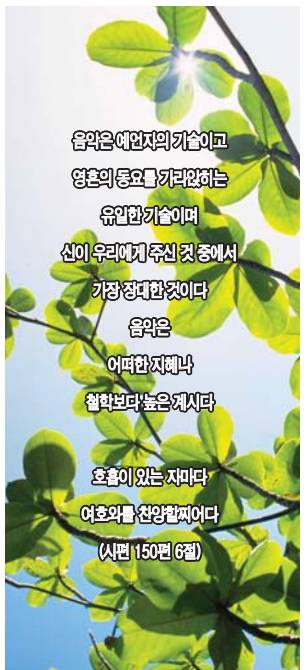
Q: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성도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나면 꼭 노래방으로 가는데, 몇 번은 핑계를 대며 빠졌는데 계속해서 빠지려고 하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노래방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기에 직장에서도 어울릴 때는 함께 어울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래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며 여가를 선용하는 장소이므로 노래방에 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속한 음악이나 춤 같은 것을 피하고 흥을 돋을 수 있는 건전한 노래 몇 곡 정도는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쾌락을 탐닉하는 자리라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먹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전10:23)라는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막스렵지 못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예언자의기술이고
영혼의동요를기리안하는
유일한기술이며
신이우리에게주신것중에서
가장정대한것이다
음식은
어떠한지혜나
철학보다높은것이다
호흡이있는자마다
여호와의친양자이다
(시편 150편 6절)